



# 대구광역일보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www.dgy.co.kr

제 2943호 단가 4337원(음력 1월 22일)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11일 오후 대구 북구 연암로 경북도청 강당에서 열린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성공을 위한 대학생 물길원정대·자원봉사자 발대식을 마친 물길원정대원들이 길을 떠나기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등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역 대학생 40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대학생 물길원정대는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개최 홍보와 물 분쟁 지도제작, 물 국민국 체험 등 물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세계물포럼의 성공개회를 위한 258명의 자원봉사자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과 미소를 잃지 않는 친절로 '천년의 미소' 경주와 경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성실히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제공 경북도청>

## 오늘의 Hot



대구가 낳은 대한민국 '야구 영웅' 이승엽 중학교 교과서 실렸다

## 월성1호기 폐쇄 광풍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년... 시민단체 월성1호기 폐쇄 촉구



<관련기사 11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놓고 '폐쇄 광풍'이 불고 있다.

세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철회와 노후 원전 즉각 폐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탈핵 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인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문재인 대표와 유윤근 원내대표 등 8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4년째를 맞은 11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1호기를 폐쇄하라는 시위가 전국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다.

경주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월성1호기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수력원자력도 수용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6일부터 월성1호기의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한 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경주시민을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 시민·환경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도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화와 노후원전 폐쇄를 촉구했다.

이날 '월성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은 서울을 포함한 광주, 울산, 청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문제를 무시하고 가동을 서두르는 것은 세월호와 같은 위기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험행위"라며 "이완구 신인 총리 등은 우리 사회 안전의 핵심문제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고, 국민들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우 기자

###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마진율 높다"

세정연 홍의락 의원,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5-6번째 높아 유족 부담 가중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의 운영마진율이 전국 국립대 장례식장의 마진율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은 11일 경북대병원 2곳(본원·칠곡)의 장례식장 운영 마진율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5-6번째로 높아 유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례식장 평균 마진율은 31.4%였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은 39.1%, 칠곡경북대병원은 38.5%로 두 곳 모두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칠곡 경북대병원의 장례식장 운영매출과 마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은 장례식장 비용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지출 부담을 줄여줄 의무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첫 동시조합장선거, 총 투표율 80.2%

총투표율 지난 10년간 조합장선거 평균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잠정 총투표율이 지난 10년간 조합장선거 평균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실시한 선거에서 선거인 229만7075명 중 184만3283명이 투표해 총 투표율(잠정)이 8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 조합장선거 평균 투표율 78.4%보다 높은 수치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은 조합장선거가 전국 동시에 실시돼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 선거인의 투표편

의가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총 762건으로 이 중 고발이 149건이며 지난 10년간 개별적으로 처리된 조합장선거의 조합별 평균 조치건수는 0.575건으로 이번 사건과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아직까지 돈 선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 △혈연·지연에 얽매인 지역사회의 특성 △금품제공에 대한 관대한 관행 등으로 봤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후보자와 언론 등으로부터의 의견이 있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치역 기자

'국민타자' 이승엽(39)이 교과서에 실렸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승엽이 중학교 교과서에 등재됐다고 11일 밝혔다.

㈜삼양미디어의 2015년 개편한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각계 직업 종사자 17명 중 한 명으로 이승엽의 인터뷰와 사진이 2페이지에 걸쳐 게재됐다.

최근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교과서를 채택한 중학교의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이승엽은 "교과서에 인터뷰가 실리다니, 기쁜 일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교과서에 내가 나온다는 게 너무 큰 영광이다. 야구를 계속 잘해야겠다. 내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문답 형식의 인터뷰에서 이승엽은 "일곱살 때 프로야구가 생겼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또래 친구들이 장래 희망으로 과학자, 선생님, 의사, 대통령 등을 말할 때 나만 야구선수가 꿈이라 말하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쳐있던 1999년에 많은 홈런(64개)을 치며 기록을 세웠다. 내 홈런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뿌듯했었다"며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

삼양미디어측은 "우리나라에 2만여 개 직업이 존재한다. 오랜 기간 다양한 연령층의 팬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이승엽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 야구 선수의 삶과 직업으로서의 모습 등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

송준관 기자

찬란한 대가야의 역사문화축제에 초대합니다!

4월 9일(목) ~ 12일(일)  
장소 | 대가야박물관 및 고령읍 일원

http://fest.daegaya.net  
문의 054)950-6424, 6111-2

# 靑, 사드 배치 '전략적 모호성' 재확인

### 민경욱, 우리 정부입장은 '3no'

청와대가 11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비박계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3 No'라고 표현한다"며 "노 리퀘스트(no request), 노 컨설팅(no consultation), 노 디시전(no decision)으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요청은 없었으며, 따라서 협의된 바도 도입 계획도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원하는 반면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시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對中) 압박의 수단으로 여기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와 교역규모 1위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우리 측은 사드 배치 논의를 최대한 피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사드 문제에 침묵해 오던 청와대가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고리로 여당내에서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3월 말에 정책의중에서 사드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치열한 자유 토론을 거쳐 당의 의

견을 집약하겠다"며 공론화를 예고하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국의 안보전문매체가 지난해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거부 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안했다는 주장을 한 것도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의원총회 뿐만 아니라 15일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윤상현 의원 등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비박계 지도부의 사드 배치 공론화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계파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엿보여 청와대의 바람과는 달리 논란이 더욱 가열될 가능성도 있다.



# 여야, 美 대사 피습 '중복' 공방... 법적 대응까지 '확전'

### 새정치연합 "중복몰이 興의원 법적대응 방침" 새누리 "정치권 웃음거리 될 것 정치 희화화 우려"

여야는 1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나선 '중복'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박대출 대변인의 '중복몰이' 발언을 확대하는 한편 피의자 김기종씨와 여당 일부 의원들의 관계를 문제 삼아 문제인 대표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변인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중복몰이'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근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극단적인 일탈로 치부하면서 김기종과의 거리두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극단적인 중북세력의 분명한 절교선언을 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무조건적 처리를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의 과거 행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엄청난 혼란을 쳤고, 구 통진당의 19대 국회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도 제1 야당으로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며 "김기종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게 해 준 다수의 야권 인사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인 대표에게 "당내 김기종과 관련된 인사가 있는지 점검하고, 중북세력과 연계되거나 비호하듯 오해받지 않도록 국민 앞에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20대 총선에서 과거 중북주의 행적을 했던 인사에 대한 공천 배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김기종과 함께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거나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기억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발뻠하면서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구 통진당과 선거 연대를 통해 통진당의 국회 진출을 도왔고 '중복 숙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문 대표의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시키고 당 대표로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며 "문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 전의 잘못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중복몰이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근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인사무능, 경제실정, 불통정치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자 이성을 잃은 채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중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속셈은 너무도 뻔하다. 낡은 이념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켜 수세에 몰린 자신들의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은 전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가 닭 보듯 하면서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 물 난물고기처럼 중복몰이, 공안몰이를 달고 나왔다"며 "정작 해야 할 일에는 느리고 나쁜 일에는 참 빠른 한심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정원 공작정치 지원법'으로 규정하고 '(대사 피습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 한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테러를 방지하지는 목적과 취지는 절대 찬성하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사찰과 인권침해 행위를 보장해주려는 '국정원 공작정치 지원법'이다"며 "이를 테러방지법으로 위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정래 최고위원도 대테러방지법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국정원 개혁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일반 폭력 사건도 테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행자부, 해킹·장애 '노후 정보시스템' 일제 점검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공아이핀 유출과 일부 노후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10일 정재근 차관 주재로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주요 정보화시스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공 아이핀과 관련, 보안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원인을 긴급 분석해 보안강화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부 보안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공공 아이핀 시스템 구조 및 성능을 진단하고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땅콩 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승무원으로부터 소송

### 10일 승무원 김도희씨 미국 뉴욕 최고법원에 소송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인 김도희 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의 JFK 공항에서 일등석 승무원이 견과류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에 든 채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격노하며 이미 이동을 시작한 여객기를 게이트로 돌아가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경남發 무상급식 중단... 여야 입장차 극명

### 興 "무상급식, 선별적으로 해야" 野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일"

경남발(發)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 정치 쟁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1일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4년이 된 만큼 그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선별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은 흉준표 경남도지사의 '대형사고'라고 규정하고 무상급식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간 문제점을 조사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 재설계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해 합리성과 형평성, 실현 가능성 즉 재원에 관한 문제는 어떤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담능력의 비례원칙이 작동해 예를 들어 이 사람은 감면해야 되겠다, 무상으로 해야겠다 등 비례의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이 변했으면 그 환경에 맞게 다시 한번(검토해야 한다)"며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이 우선순위 인지를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심재철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흥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공짜 급식 663억원을 서민자녀 교육보조금에 쓰기로 한 것은 잘 된 결정"이



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학부모들의 가슴에 묵을 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남 전체의 무상급식 예산이 642억원이다. 경남도 지분을 제외하고 경남이 부담하는 것이 257억"이라며 "이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흥 지사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도들도 무상급식을 다 하면서 흥 지사보다 더 많은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하고 있다"며 "결국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뒤편 행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서민교육 지원사업을 펴겠다고 발표할 바 있다.

# 홍용표 청문회, '대북 해법' 검증... 도덕성 문제 쟁점



### 대북정책과 관련된 개선책 요구

국회에서 11일 실시된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를 위한 대북정책 비전 검증과 자기논문 표절 등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5·24 조치 해제와 사드(THAAD) 도입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을 놓고 통일부 수장으로서의 견해를 추궁하면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개선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5·24 조치 해제 요구가 높는데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해서 풀리겠느냐"며 "지금까지의 방식을 반성해야 한다. 비공개 물밀접촉 등 채널을 다양화하는 게 첫번째 과제다. 국제사회와 함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김태호 의원은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조건없는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 5월 모스크바 2차대진 중진 70주년 기념식에 남북 지도자가 초청됐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에 통일부가 앞장섰다"며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 당사자로서 북한을 덜 자극해 대화를 이끌어 내고 긴장 완화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통일문제에 대해 접근하거나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아마추어 정권이다. 한쪽은 신뢰 프로세스, 한쪽은 통일 준비, 한쪽은 평창 올림픽 분산하자고 하고 있다"며 "남북간 신뢰 프로세스를 갖기 전에 정

부와 국민간 신뢰 프로세스를 가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5·24조치와 관련, "근본적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장병 46명이 희생당한 것에 대해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고수했다.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대북특사 의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고 장관이 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겠다"고 열린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홍 후보자를 둘러싼 자기논문 표절 논란과 재산신고 누락 및 세금탈루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질의도 주를 이뤘다.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학자로서 출세해 이 자리까지 오게됐는데 옥스포드 등에서 표절에 대단히 엄격하다"며 "다인 논문 표절과 자기 논문 표절은 본질상 비슷하다. 자기 표절이 더 질이 나쁘다는 사람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고 문헌을 재인용했는데 원문에서 처음 본 것처럼 인용했다"며 "수십페이지를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눌러 복사하고도 (논문 표절이) 일부라고 했는데 이게 일부인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원혜영 의원은 "위장전입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의혹 등 부적절하고 논문 중복게재 등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적십자비도 지난 5년간 한 푼도 안냈다.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이 적십자 회비를 안 낸 것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라고 추궁했다.

홍 후보자는 재산 의혹 등에 대해 "청문회를 준비하며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며 "재산 문제와 관련해 워낙 재테크 쪽을 몰라서 세금문제 등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국민과 위원들에게 송구스럽고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자기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연구과정에서 일부 출처의 인용표시를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송구스럽다"며 "연구용역보고서는 당시 기준 논문을 보고 정책 제언 등을 써달라고 해서 활용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용이 조금 됐다"고 해명했다.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3

대구시·경북도민이 공감하는  
상생 본격 추진·과제 확정  
28개 협력과제 심의·선정

경북도와 대구시는 11일 대구파이낸스 빌딩(18F)에서 '대구경북한반리상생위원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25일 창립총회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구경북한반리상생위원회'에서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및 실·국장급 공무원들을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과 시·도의회, 학계, 언론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대표성을 가진 위촉직위원을 포함한 총 4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선별과 임명을 통한 성공적인 상생협력 과제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시립예술단의 오카리나&플루트 초청공연에 이어 다음 달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 홍보, 대구경북한반리상생위원회의 추진방향 및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대구·경북 상생협력 과제 심의·확정을 위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경북한반리상생위원회 사무국에서는 과거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와 대경관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21개 과제와 시·도에서 신규 제안한 7건의 과제를 포함 총 28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는 공동협력과 사업추진 용이성, 공유이익 창출도, 신성장동력 창출 가능성, 균형발전 공헌도, 삶의 질 개선도 및 주민 공동관심도 등을 고려해 대구·경북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고 시·도민이 공감하는 공동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게 된다.

주요 과제로는 세계물포럼, 국제관광박람회, 남부권 신공항 추진,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철도 연장, 대구경북철도의료복합단지 조성, 포함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등의 기존 과제를 포함, 2016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추진, 팔공산 둘레길 조성, 할매·할배의 날 추진, 동학 순례길 루트 탐방 등의 신규과제가 포함돼 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낙영 부지사는 "대구경북한반리상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출발점인 만큼, 지금까지 이루어낸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도민이 공감하는 대구·경북의 상생협력 중심적 토대를 구축해 상호교류와 본격적 활동을 보여주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두 손을 맞잡았다.

김치영 기자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군대표 간담회

경북도는 10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금년도에 새롭게 출발하는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군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으로 1년간 모니터단을 이끌어갈 경북도 대표를 비롯한 임원선출과 모니터단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발전의 장이 되는 자리가 됐다. 금년도에 출범하는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주부, 회사원, 대학생, 다문화가족 등 23개 시군 300명(여 250, 남 50)으로 구성했으며, 연령은 40~50대(77.1%)가 대부분으로,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59.7%, 직업은 회사원 등 직장인이 57.1%이다.

이번 모니터단 구성 특징은 전문직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여성위주에서 탈피, 남성 참여 비율을 확대(16.7%)했고, 회사원과 다문화 가족 등 공개모집(80%)을 통해 참여 채널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현장 모니터링, 민원제보, 행사·캠페인 참여 등 내년 2월까지 1년간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김치영 기자

## 계약원가심사 관계공무원 워크숍 예산절감 일등공신

경북도, 업무노하우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과 도민복지 추진

경북도는 11일 경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에서 시·군 계약원가심사 담당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100여명과 함께 관계 공무원 워크숍을 가졌다.

계약원가심사제도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 시행 전 과다·과소하게 계상된 예산을 조정하는 제도다.

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2008년부터 7년간 축적한 계약원가심사 경험을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공사설계의 오류 및 잘못된 가격조사 등을 최대한 발굴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열었다.

감사부서 뿐만 아니라 회계부서, 사업부서 등 다양한 부서에서 참여한 만큼 참석자 전원이 원가산정 과정을 손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 중심으로 진행됐고, 아울러 청렴경북 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패·비리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축적된 계약원가심사 노하우 및 계약원가심사 업무의 시너지 효과로 지난해에만 92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계약원가심사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원가심사 기준, 기법 등을 수록한 '계약원가심사업무편람'과 '2014 계약원가심사사례집'을 제작 배포해 시·군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김중환 감사관은 "금년에는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과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절감을 담당하는 계약원가심사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하며 "우리가 열심히 연구·노력해 절감된 예산들은 도민들에게 다시 투자되어 우리들에게로 혜택이 돌아오는 만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치영 기자

#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물길따라 떠나는 힘찬 출발

## 대학생 물길원정대 자원봉사자 발대식

경북도는 11일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성공개회를 위한 '대학생 물길원정대 및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다.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D-32일을 맞아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정무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장, 권영진 대구시장,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주요인사와 세계물포럼 대학생 물길원정대원 및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 물길원정대원 및 자원봉사자 위촉장 수여 및 선서, 도내 22개 시·군 및 울릉·독도의 물과 대구시 물의 합수식, 에코그린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합수된 물은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성공개회 및 상생발전의 염원을 담아 신도청이전지의 호수까지 뿌려질 예정이다.

지역 대학생 40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대학생 물길원정대'는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개회 홍보 및 물 분쟁 지도제작, 물 국민포체협 등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되며, 물과 관련한 경북도의 주요거점과 관광자원 등을 On-Off라인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경북도 주요 지자체 및 물 산업관련 기업 등을 방문해 23개 시군의 물포럼 성공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물포럼 성공개회 기원 메시지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수거된 메시지는 본 행사 당



일(4.12~4.17) 행사장 주변 전시를 통해 경북도민의 성공개회 의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또 물길원정대 발별로 미션을 부여해 현장스케치, 관계자 및 시민 인터뷰, 동영상 촬영 등 다양한 형태의 취재 방식을 통해 다각적인 기획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는 SNS(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현장 사진과 글을 실시간으로 게재해 전 국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대구 경북의 물 산업 및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참 분위가 확산을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물포럼의 성공개회를 위한 258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

외 참가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과 미소를 잃지 않는 친절로 '천년의 미소'경주와 경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2015 대구·경북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성실히 봉사 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들은 세계물포럼 기간 동안 주요 행사장인 화백컨벤션센터, 호텔 등 경주 전역에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앞장 설 예정이며, 시티투어 및 행사 진행, 등록 및 안내, 숙박, 수송, 관광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들은 3월 중 현장실무교육을 통해 활동분야별로 수행해야 할 상향별 임무를 숙지하게 된다. 이번엔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

자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주기 위해 유니폼, 실비(교통비, 식비)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제공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경북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관용 지사는 "물포럼 성공개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자원봉사자 및 물길원정대에게 위촉과 격려를 통해 자긍심 고취는 물론 막바지 범도민적 분위기 조성과 물포럼 참여 홍보에 박차를 가해 달라"며 "때론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낙동강 700리 힘찬 물결!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치영 기자



## '등대' 동해안 관광 핵심 콘텐츠로

### 신동해안 등대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

경북도는 11일 포항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와 동해안 5개시군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신동해안 등대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동해안 등대관광벨트 조성 마스터플랜과 함께 시군별 등대관광 명소화 방안을 확정·발표해 앞으로 경북 동해안이 등대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의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등대는 항로표지 중 광표표지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구조물로서 경북도에 총 111개(유인6개, 무인96개, 사설9개)가 설치돼 있다.

이 중 호미곶등대와 죽변등대는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울릉도·죽변·도동 등대는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돼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포항에 위치한 국립등대박물관은 매년 기획전시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 국등대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는 해양수산부의 출범과 함

께 동해안발전본부(2013년 11월)의 신설을 계기로 정부의 '해양 관광·레저 진흥'정책과 연계해 동해안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왔다.

특히 4월 개통을 앞둔 포항KTX직결선과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동해중부선 확충 등으로 동해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도차원의 선제적 정책대안의 마련에 힘써 온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 국정과제와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년)을 연계한 등대콘텐츠 관광명소화 추진은 향후 동해안의 광역 접근성 향상과 맞물려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2년 기준 경북관광객 1억576만명 중 4558만명이 동해안을 방문해 43.1%를 차지했고, 내륙지역을 제외한 해양관광객이 1846만명이며, 이 중 등대관련 콘텐츠를 방문한 관광객이 490만명(26.6%)으로 파악돼 정책추진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신동해안 등대관광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890억원을 투자한다.

체류형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등대콘텐츠 거점개발'을 추진하고, 국립등대박물관 내 국민등대교육원을 조성한다.

김치영 기자



## 주한 세네갈 대사, 새마을운동 확산 지원 요청

### 세네갈 정부, 현지 호응도 높은 새마을사업 확대 위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1일 마마두 은자이 주한 세네갈 대사의 예방을 받고 세네갈 새마을운동 확대보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현지 주민들의 자립역량강화를 초점으로 두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새마을 세계화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주한 세네갈 대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한 세네갈 대사는 "경북도 새마을세계화 사업은 일반적인 원조와 차별화되며 현지 호응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

이 기울인다"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른 선진국과 협력하는 삼각협력구도 구축으로 현장 사업을 확대·보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있다"고 밝히며 세네갈에 새마을운동을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김관용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은 마을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고민과 의지에 상당한 관계가 있다"며 "주민들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정부적 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의지가 있을 때 경북도는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경북도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마두 대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치영 기자

###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총력

경북도는 해빙기 재해에 취약한 도내 저수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저수지 5529개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일제 실시한다.

특히 경북도에서는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에 대해 11일부터 2일간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저수지 안전점검에 총력을 다 한

다. 한편 도는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해 지난 해부터 저수지 안전관리 실행계획을 실시해 '매월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예보시는 수시 순찰하는 등 저수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수리시설안전관리과정 교육을 개설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시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치영 기자

# 사회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4

## 영천썸, 편의점서 담배 뺏고 노모 폭행한 40대 검거

영천경찰서는 담배를 의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기로 여중업원을 위협해 담배를 뺏고 자신의 노모를 상습 폭행한 김모(45)씨를 특수강도와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45분께 영천시 한 편의점에서 흥기로 여중업원을 위협 후 담배 한갑(시가 45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88세 노모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여중업원이 의상으로 담배를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검거할 당시 김씨의 아파트에서 이마에 상처가 있는 노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김씨가 손과 발을 이용해 노모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일만 기자

## 고령경찰, 말다툼 중 동거녀 흥기로 찌른 40대 긴급 체포

고령경찰서는 말다툼 중 화가나 동거녀를 흥기로 찌른 이모(43)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12분께 경북 고령군 고령을 지산리 자신의 주택에서 만취한 채 사실혼 관계에 있는 A(47·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흥기로 A씨의 가슴을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흥기로 A씨를 찌른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영수 기자

## 시설공사 현장 철저한 점검 부실 공사방지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시설공사나 청사신축 등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현장에 대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정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21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건축·토목·전기·설비 등 전문 기술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안전, 품질, 시공, 청렴계약 이행여부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통해 하자발생 및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번 점검은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공자의 청렴·성실시공 등 동기 부여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물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치영 기자

## 우리나라 자동차 일평균 43.8km 주행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하루 평균 43.8km를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11일 자동차 주행거리를 분석(2013년 기준)한 결과, 일평균 43.8km, 연간 1만5987km를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7.4km, 승합차 63.5km, 화물차 51.6km를 주행했다.

용도별로는 비사업용이 35.8km, 사업용이 133.8km로 사업용이 비사업용보다 3.73배 더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의 연도별 주행거리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 일평균 61.2km에서 2013년 43.8km로 지난 11년간 17.4km 감소(28.4%)한 것으로 조사됐다.

##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대대적 전개

경북도는 11일 안동 낙동강 둔치에서 2015 세계물포럼 손님맞이 준비 및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주낙영 행정부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장대진 도의회의장, 김한규 안동시 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시의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연보호협회,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회 등 20여개 민간단

체와 도·시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낙동강변의 안동대학교에서 법흥교에 이르는 강북지역과 안동대학교에서 성회여고 주차장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 각 기관·단체별로 책임구간을 지정, 쓰레기 수거활동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연보호 캠페인도 함께 했다.

김치영 기자



## 울진 백골 변사체 뼈 절단 흔적 ‘경찰 살해 가능성’ 수사

A형 40대 여성... 코 성형수술 흔적

울진경찰서는 지난 1월 울진군 평해읍 아산에서 발견된 ‘백골 변사체’는 살해 후 유기됐을 가능성이 큰 40대 여성의 것이라고 추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백골 시신은 신장 157~166cm, A형 혈액형의 40대 여자로서 사망 시기는 최근 1년 이내로 추정된다.

또한 발견된 뼈의 일부분에서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는 점을 볼 때, 살해 후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10일 약조를 채취하려 가던 중 사람의 것으로 의심되는 다리뼈를 발

견했다는 신고를 접수 후 인근지역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최초 발견지점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곳에서 백골화 된 두개골을 발견했다.

또 두 곳의 장소에서 대부분의 인골을 수습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1월17일부터 울진경찰서와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함께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피해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장에서 코 보형물이 발견돼 피해자가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전자를 채취해 비슷한 연령대의 가출자를 찾고 있다.

김형성 기자

## “시민들 불편 상상초월” 불 보듯

대구시내버스노조, 노선 개편 반대 2차 결의대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내버스노조는 11일 오후 3시 대구시청 앞에서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의 시내버스 감차를 동반한 노선개편에 반대하는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매년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대구시내버스의 체질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올해 1월 기존 실시된 대중교통체계개선 용역결과 초안을 마련한 뒤 2월 5일 시민위원회 산하 노선조정통합분과회의에서 구체적 노선개편을 보고했다.

하지만 노조는 산하 지부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노선개편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버스노동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지난 4일 제1차 시내버스 감차를 동반한 노선개편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시내버스노조 정병화 위원장은 “대구



시의 재정지원 이유는 준공영제에 의해 발생하는 시민편의 비용을 부담하고 동시에 요금 억제 정책에 따른 수입금 감소부분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구시와 시의원들이 정치적 선동으로 시민의 발을 묶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재정지원금의 상당부분이 환승비용인데도 세금을 아낀다는 핑계로 감차대수를 미리 정하고 짜맞추기 노선개편을 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날 시내버스 감차를 동반한 노선개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송종관 기자



## 김관용 지사, 경주 산불 현장 방문 상황점검

경주 강동 산불발생 현장 통합 지휘본부 신속 구성 주민 생명 재산피해 예방 특단대책 지시

10일 건조주의보와 초속 7m의 강풍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온정마을 뒷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에서 발생한 산불진화를 위해 공무원, 산불전문 진화대, 소방대 등 2470명을 투입했다.

또한 헬기 17대, 산불진화차, 소방차 등을 동원하여 일몰전에 주불진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후에 강한 바람 영향 탓에 불길을 잡지 못했다. 11일 현재 산림 10ha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다행히 민가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경주 산불이 야간산불로 계속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에 경주시 강동면 온정마을(은혜원)에서 주낙영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구성했다.

또한 야간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92명)를 투입해 밤11시에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정리와 뒷불감시에 주력했다.

산불진화는 일출과 더불어 헬기 11대, 군부대, 소방대, 공무원 등 1000여명을 대거 투입해 오전 10시 이전에 잔불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김관용 지사는11일 새벽 산불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불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공무원, 군인, 소방관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아울러 산불 완전 진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김치영 기자

## “영화란 지루한 부분이 커트된 인생”

지방 첫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지역 문화 다양성 확보 ‘첫 걸음’

“영화가 나빠지는 길 본 다음에는, 세상이 나빠지는 길 보게 될 겁니다. 영화란 지루한 부분이 커트된 인생이다”

오오극장 벽 윗쪽에 붙어 있는 문구이다. 영화라는 거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살이를 비춰볼 수 있다는 말이다. 영화 같은 인생,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인생을 자본보다 감독·작가의 창의적 관점과 열정에서 해석해 낸 영화, 돈을 기대하지 않고 만든 영화가 독립영화이다.

2012년부터 준비해 지난달 11일 대구지역 최초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537)이 개관했다. 대구 영화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린 셈이다. 대구 영화인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의 모금활동과 관심을 모아 힘들게 열었다. 화려한 멀티플렉스의 영향에서 벗어나 건강한 영화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대구 영화인들의 뜻이 이뤄낸 결실이기도 더욱 값있다.

오오극장이란 명칭은 “하나부터 열까지 (1+2+3+4+5+6+7+8+9+10=55) 놀랍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좌석도 55석으로 기대 이상으로 편안하다. 얼마 전 자금을 건다 못해 폐관한 예술영화 전용관인 ‘동성아트홀’을 떠올리는 관객에선 신선하면서도 작은 충격이 된다.

작지만 아담한 카페 33다방에도 뜻을 같이한 지역 독립예술인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특히 김병호 작가의 노란 우산을 쓴 여인이 눈에 띈다. 7.80년대 은막의 여인 정윤희 씨라고 한다. 로비에에는 영화 관련 책과 자료들이 비치돼 있으며 DVD를 감상할 수 있다. “33다방과 55극장은 ‘삼삼오오’ 모



여 앉아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면서 재미있게 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독립영화가 주는 설명하기 힘든 거리감(?)을 극복하자는 세심한 뜻이 극장 곳곳에 담겨 있는 듯하다. 이번 개관은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편식이 몸에 해롭듯이 영화도 제작과 유통, 작품성에서 다양한 문이 열려있어야 한다. 지금은 3년 연속 관객 1억 명을 돌파한 한국 상업영화의 최고 흥행시대라고 한다. 전국 2,184개 스크린 중 독립영화전용관의 스크린 수가 단 0.18%에 불과하다는 영화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은 돈(상업성)과 재미(흥행성)에 의해 간과되고 있다.

이에 “영화의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가로막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영화관”을 지향하는 오오극장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오극장 최태규 운영팀장은 “거대 투자 자본과 흥행성을 통해 돈을 벌려고 만든 영화, 시나리오 규칙에 따라 관객의 코드에 맞춰 연출한 상업영화의 반대편에 독립영화 있다”며 “독립영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바깥에서 맴돌면서 ‘어! 극장 있네!’라고만 하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독립영화를 한 번 경험해 보면 매력에 빠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종관 기자

## 대구시 “역대 중 가장 안전한 물포럼 만든다”

세계물포럼 안전대책본부 구성 테러 등 비상 상황 신속 대응

대구시는 안전한 세계물포럼 개최를 위해 별도의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테러 대응 등 비상 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태욱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안전대책본부는 국정원·경찰청·한전·가스공사 등 지역안전 관련 관계기관 합동으로 꾸려진다.

시는 본부 내에 행정지원반·대테러경비반·소방방재반·전기가스통신반·식품위생반·보건의료반 등 전문인력 21명을 포함시키고 향후 경찰청으로부터 필요 경비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다.

시는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행사장 건물 내부(EXCO), 행사장 주변도로, 행사장 둘레 약 1.5km로 행사장 안전관리구역을 설정했다. 검문검색 강화 및 일반인 출입 통제, 차량진입 통제 등 안전 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포럼 참가자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국·수송·숙박·의료 식품안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예블라 유입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행사를 치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시는 안전한 세계물포럼 개최를 위

## 대구, 청소 시스템 개선 쓰레기 배출시간 단일화

대구시는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청소시스템을 개선한다.

대구시는 청소시스템 개선을 위해 8개 구·군 간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을 단일화하고 분전 수거 방식으로 변경해 주민불편과 도시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원통 및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분리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수거 시기 개선과 수수료 체계 단일화를 통해 대형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 국정원·경찰청·군부대 등 보안·안전 관련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왔다. EXCO 및 행사장 주변 지역, 관광호텔 등 100여개의 숙박시설과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소방·전기·가스·위생 점검 등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물포럼은 3년마다 개최되는데, 7회째를 맞이한 2015 대구·경북세계물포럼은 다음달 12일부터 17일까지 역대 대구·경북 일대에서 열린다.

세계 170여개국의 정부·기업·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Our Future)을 주제로 다양한 물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로 국정원대 구지부장, 군부대장, 대구경찰청장, 한국전력, 전기·가스대구경북본부장 등 물포럼 안전 관련 지역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12일 개최해 세계물포럼 대테러 대응 대책, 주요인사 경로, 주요시설 경비 등 행사장 안전·보안관리 대책, 예블라 바이러스 예방대책, 행사장 및 숙박시설에 대한 합동안전점검 실시 등 기관별 안전대책 협력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시 진용환 세계물포럼지원단장은 “국정원, 경찰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역대 세계물포럼 중 가장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덕 기자



철도 변, 원통가, 뒷골목 등 청소 취약지를 중점 순찰해 방치 쓰레기를 처리하고 명절맞이·새봄맞이 대청소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계 물 포럼 대비 청결 활동의 일환으로 월 1회 ‘대청결의 날’을 지정해 △도로 청결 자원봉사 △스페셜물처리 일사천리 봉사 △공공주택 사랑의 물품나눔 △청소 취약도심 순찰지 천천천 뒷밭 등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영덕 기자

# 대구

대구광역시일보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5

중구 남구  
 동구 수성  
 북구 서구  
 달서 달성



**배광식 북구청장**은 11일 오전 북구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되는 '북구청준교실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12일 '디지털달성문화대전' 협약식에 참석해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업무 협약을 맺는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12일 오전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직무-소양교육'에 참석한다.

## 중구, 저소득층 대상 무료 유방암 초음파검진 실시

중구청은 중구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유방암 초음파검진'을 실시한다. 무료 초음파검진 대상은 국가 무료암 검진결과 유방암 유소견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이내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무료검진을 제공하며 유방암으로 확진을 받으면 암 치료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유방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검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적기에 검사받지 않아 유방암이 많이 진행된 후 치료해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역 구비 사업으로 시행한다. 중구는 무료 초음파검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병원 외 7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협약검진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검진 받을 수 있다. 송종관 기자



## 달성군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회'

달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문오 군수를 비롯한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지역농민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달성군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 국비사업 23건, 176억4000만원에 대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심의, 확정해 대구시에 신청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및 포괄보조 5개년 계획 등 농업분야 기본계획을 총괄해 달성군 농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 '달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4년~2018년)을 심의 확정했다. 또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자원복합화 지원 사업 17건 및 농지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 5억원을 신청하기로 심의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농축산물 개방과 농가경쟁력 증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적극적인 농정지원으로, 달성군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 달성군, 이동종합복지 서비스 실시

달성군은 지난 10일 유가면 유곡2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이동종합복지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이동종합복지서비스는 늘푸른사랑나

눔봉사단에서 자장면 차량을 지원해 자원봉사자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집수리(도배·장

판), 이불빨래, 미용(빔·컷), 발마사지, 꽃길조성 등의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또 종합복지상담, 건강 체크, 민요공연 및 전통놀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달성군 유곡2리 마을회관에서 60여명의 어르신이 방문해 각종서비스를 받고 공연을 즐기며 훈훈한 분위기로 꽃샘추위를 녹여냈다. 김영식 기자



# 남구청, 부패 감시 '보고 또 보고'

## 부패 없는 클린 남구 건설 부패방지·청렴시책 추진

전국 대표 청렴 도시인 남구청이 4대 과제 28개 세부실천 사항이 담긴 '2015 부패방지·청렴시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남구청은 대구시 구·군 부패방지업무 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2013·2014)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왔다. 이번 아니라 2013년 한국메니페스토 기초

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렴분야에서도 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청렴지수가 높은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남구는 이런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더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대 과제 28개 세부실천 사항이 담긴 2015년 부패방지·청렴시책을 수립했다. 중점 과제는 △부패유발 관행 타파를 위한 시스템 개선 △청렴의식 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 △부조리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강화 등으로 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전직원 부패방지·청렴교육의무 이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공개 △공공직자 자기관리 마일리

지제 운영 △도전!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행동강령 및 읍주예방 홍보문자 알리미 전송 등 28개 실천사항을 추진한다. 특히 부서별로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를 1건 이상 발굴해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생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자정 의지를 높일 계획이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우리 남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청렴도가 특별히 높은 기관"이라며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고삐를 다잡아 조금의 부정·부패도 허락하지 않는 깨끗한 클린(Clean) 남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규명민 기자

## 깨끗한 동네, 어르신들 '솔선수범'

### 달서구, 찾아가는 경로당 청소행정 설명회 가져



달서구는 16일부터 성당동 삼성경로당 등 62개 구립 경로당을 직접 찾아 잘못된 쓰레기 배출사례 등을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청소행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어르신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많은 구립 경로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각종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삼성경로당 등 62개 경로당 2,695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5월 말까

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쓰레기 배출방법,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주민들이 청소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알기 쉬운 분리 배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법,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등 '쓰레기 배출안내 가이드북'을 2만2000부 제작·배부해 경로당 설명회 뿐 아니라 주민홍보에 적극 활용하며, 지난해부터 22개 동별 청소 실태와 쓰레기 취약지역 등을 분석한 PPT자료를 통해서도 지역의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도 기울인다. 한편 달서구는 단독 주택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개선, 원통 및 다가구 밀집지역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보급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추진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공동주택 55개 단지(4만9643세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종량제 기기 170대를 추가 설치해 전체 공동주택 48%까지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연간 30%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처리비용 3억원의 예산도 절감할 계획이다. 광대훈 달서구청장은 "가정에서 올바른 쓰레기를 배출하는 습관이 지역 청소문제 해결의 선형 조건이며, 특히 오는 4월 12일 세계 물 포럼 개막을 앞두고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 수성구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최종 선정

### 수성구-경산시- 대구한의대 수성지역 ECO자원 연계 통한 주민 HI-UP 프로젝트 선정

수성구와 경산시, 대구한의대가 함께한 '수경(壽慶)지역 ECO자원 연계 통한 주민 HI-UP 프로젝트'가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 지원 받는다. 수성구청은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 인증서를 받았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형성한 시·구·군간 주민불편 해소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확산과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치단체간 연계 협력사업이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경산시와 교육(Education), 문화(Culture), 한방의료산업(Oriental medicine) 등 지역우수자원 연계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지수(Happiness Index)를 향상(Up)시키기 위한

'수경(壽慶)지역 ECO자원 연계 통한 주민 HI-Up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응모했다. 이 사업은 수성구와 경산시가 연계한 대구중추도시생활권 사업으로 수성구가 주관하고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가 공동으로 신청했다. 그 결과 대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수성구가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체사업비 37억 중 국비 30억을 지원받게 됐다.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사업단을 구성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주민의 건강증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발전위원회 컨설팅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올해 추진하는 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경산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민들의 행복지수 향상 및 꿈의도시 행복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이미 지난 2013년에도 달성군, 청도군과 함께 한방의료 휴양 관광을 연계한 '한방 휴(休) 사업'을 통해 36여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종관 기자



## 올해도 조기마감 예감! 늦기 전에 서두르세요

### 달서가족 어울림 축제 참가자 모집

달서구는 이웃과 어울려 소통·화합하는 행복한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제4회 달서가족 어울림 축제' 참가 가족을 오는 4월15일까지 모집한다. 달서가족 어울림 축제는 다양한 계층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려 상호이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

해 오는 5월 9일 성서산업단지 내 호림강나루 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350가족 1300여명의 공개신청을 받아 4개팀(웃음팀, 행복팀, 어진팀, 선한팀)으로 구성해 팀별 대항전으로 진행한다. 신청자격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여성가족과로 전화신청(053-667-3511) 및 달서여성행복카페로 신청하면 되고(http://cafe.daum.net/womencity-dalseo), 참가비는 무료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명랑경기로 공굴러가요, 전락줄다리기, 징검다리, 문어발양궁, 풍계구름 등 체육경기 6종과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Together enjoy"시간을 갖는다. 또 홍보 및 체험마당으로는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체력인증센터, 달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의 참여로 리본아트만들기, 웃는얼굴가족사진촬영, 액자만들기, 수첩만들기, 풍선아트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송종관 기자

## 북구청 'Run To You' 평생학습 그룹 모집

북구청은 그룹 단위의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Run To You' 학습그룹을 오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12개 팀을 모집한다. 'Run To You' 평생학습은 7명 이상의 주민들이 한 팀을 이루어 원하는 학습주제를 선택하고 학습계획을 수립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그룹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평생학습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강좌에 7명 이상이 참여하면 된다. 신청 강좌는 공예, 부모교육, 서예, 문해교육, 요가, 건강댄스 등 신청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신청은 북구평생학습센터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구청을 방문하거나 E-메일(bmr@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북구청에서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심사해 교육내용과 교육장소 및 적정 강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북구 평생교육 비전과 목표 등에 적합한 과정으로 인정되면 학습그룹으로 선정한다. 한태명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다른 교육과 달리 주민들이 학습주체가 돼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가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6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 영덕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영덕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상반기(2015. 4. 29)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과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주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읍·면·출장소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전(全)세대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종·공공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및 정리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감됨으로 기간 중 자진신고하고, 전 세대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건 기자

## 경주시,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나서

경주시는 봄철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주요도로(가로)를 대상으로 음란·퇴폐적인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해빙기 낙하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노후·불법 고정간판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음란·퇴폐적인 선정적 유해광고물의 경우 적발 즉시 수거, 폐기 처분과 함께 이동통신회사와 협조해 통신망 정지 조치를 하는 등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윤용찬 기자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환경**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땅** 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리겠습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 영덕, 농촌일손부족 해결 적극 나선다

영덕군과 (사)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 연합회는 농번기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 농촌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지난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밝혔다. 농촌일자리 지원센터는 (사)한농연 영덕군연합회가 업무를 대행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센터

는 한농연사무실에 설치되는데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와 일자리를 원하는 주민들을 연결하는 일자리매칭이 주 역할이다. 농번기 일시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과수와 시설채소 분야를 중심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집중 운영하며 그 밖에 작목에는 농가에서 필요할 때 수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승건 기자



## 중국 언론사 관계자 초청 포항 매력 흠뻑 '팸투어'



### 중국인 관광객유치 위한 포항 관광상품 홍보개발

중국 언론사 관계자 15명이 경북도와 경북도관광공사 초청으로 11일 포항 팸투어를 가졌다.

이번 팸투어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일환으로 포항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팸투어단은 포항운하 크루즈를 체험했으며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 포스코 역사관 등 포항만의 차별화된 관광코스를 둘러봤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운하관을 찾은 팸투어

단에게 포항의 관광지와 먹거리를 적극 알렸으며, 포항-서울간 KTX개통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쳐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도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팸투어 단장은 중국 여행가잡지사 편집장은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서울, 제주뿐만 아니라 매력 넘치는 도시 포항을 널리 알릴 수도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KTX개통에 따른 수도권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개선하고, 경북도, 관광공사와 연계해 해외 여행사,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포항관광 팸투어와 세일즈 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우 기자

## 울진, 전문 농업인 한자리에 모두 모여

### 울진녹색농업대학 총동문화 개최

울진군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꿈을 모아 미래농업, 힘을 모아 행복농촌'이라는 슬로건으로 울진녹색농업대학 수료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영근 총동문화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울진농업 최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울진농업을 실질적으로 선도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울진녹색농업대학 수료생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울진녹색농업대학장인 김진원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울진군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돈 되는 소득 작목 중심의 지역대표작목 육성, 농업의 6

차산업화, 노동력절감형 농업발달' 등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울진녹색농업대학생들이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으로 동참해 실질적인 울진농업의 핵심리더로 자리 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여진 특강에는 김두성 기공학 강사가 '한민족 고유의 풍류건강법'이라는 주제로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농업인들이 소홀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므로 농업인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세심한 배려를 하기도 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9기에 걸쳐 배출한 310명의 울진녹색농업대학 동문들과 향후 졸업하는 녹색농업대학생들을 울진농업의 중추적인 핵심리더로 육성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 영덕군민들과 전국대회 우승 기쁨 함께 나눠요

###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챔피언 강구초, 우승 카퍼레이드 펼쳐

지난 10일 오전 영덕 강구면 일원과 영덕군청 일원에서 '2015 보물섬배 전국 유소년 축구 우승자'인 강구초등학교 축구부 선수단을 위한 카퍼레이드가 펼쳐져 꽃샘추위마저 녹이는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이날 카퍼레이드는 강구초등학교축구후원회, 강구면사무소, 강구면체육회에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경남 남해에서 열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강구초등학교(교장 박순남, 감독 최호관) 축구부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선 조1위로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한 강구초등학교 축구부는 8강전에서 부산남동초등학교를 3:0으로 격파하고, 4강전에서는 충북

덕평초등학교를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로 제압한 후 결승전에서 성남중앙초등학교를 상대로 시종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다 전반 종료로 5분 남기고 결승점을 올려 우승컵을 차지했다.

전국대회 우승과 더불어 축구부 이한선 선수가 최우수선수상, 배준호 선수가 GK상, 김지민 선수가 최우수수비상을 수상했으며 한일 친선축구대회 출전권을 획득하는 쾌거도 이뤘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강구초등학교 축구단 창설이후 최초로 획득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우승컵이어서 더욱 뜻 깊고 자랑스럽다. 오늘의 승리는 영덕의 힘이고, 4만여 군민의 저력을 보는 것 같아 가슴 뭉클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호관 감독과 선수들은 물론 원정경기에 참여해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 부모님들과 우리군민들의 뜨거운 축구 사랑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축구매니아로서 군민들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안겨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승건 기자

## 경주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최종 선정

경주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울산-경주 간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경주 간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은 울산중추도시 생활권에 속한 경주시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올해 12월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0억원 중 국비가 70%인 14억원이 지원되며, 지방비 6억 원을 부담해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인 '지역행복생활권'은 접근성, 기능적 연계, 지리적 연계,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의 유형 중 경주는 중추도시생활권(울산, 경주, 밀양, 양산)으로 지난해 2월 구성을 완료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울산-경주 간 통행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도모 및 지역 간 상호교류 확대 및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21세기 동해안시대  
최고의 관광휴양지

# 盈德

Welcome to Yeongdeok

영덕군은 태백지역의 신비스런 팔각산과 옥계계곡 등의 명산절경과 동해안 53Km의 푸른바다가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이름난 곳이며 저상산인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전설이 서려있고 대개, 복숭아등 특산물이 풍요로운 한국지방자치경연대상에 빛나는 고장입니다.

블루로드와 풍력발전단지

블루로드 B코스

옥계계곡: 천연기념물, 지방민속문화유산과 동해안의 기암괴석이 절경인 '이름난 옥강이 맑고 푸른 물이 흐르는 기암괴석이 절경인 계곡입니다.'

#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7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 영천시 다문화업무종사자 간담회 개최

영천시 교육문화센터는 지난 10일 관내 식당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위한 다문화업무종사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일선 현장에서 앞장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등 업무관련자 15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다문화가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

과 장기적인 역량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업무추진 과정상 개선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해 다문화지원사업 발전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일만 기자

# 경산, 무학 신도시건설 본격 시동

무학택지 개발사업 보상 안내 주민설명회 가져 공금증 해결

경산시 하양읍은 지난 10일 서사리 마을회관에서 서사, 도리, 양지리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학택지 개발사업 및 보상 안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시행자인 LH 경산무학 PM(Project Manager) 사업단(단장 이성기)에서 사업개요,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보상안내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져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공금증을 해결해 줬다.

이날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서사리 마을을 사업지구에서 제외해 줄 것과 보상 평가

기준시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2008년 1월 2일이 아닌 개발계획 승인된 날짜인 2014년 12월 16일로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LH공사의 사업성과 본 택지지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초시설(도로, 상, 하수도)설치 등 개발전체를 봤을 때 제척은 불가하며, 지금 공사 중인 조산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과도 연계, 새로운 하양 무학 신도시를 위해서도 반드시 포함시켜 개발돼야 한다"고 설득했으며,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 보상에 대해서도 "공시지가가 물론 물가 상승률도 감안해 책정되도록 LH공사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용 하양읍장은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LH공사 관계자에게는 보상과정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읍에서도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산시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주민을 대표하는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민 요구 및 건의사항을 경산시와 LH공사, 주민대책위가 수시 협의하기로 했다.

신경운 기자

경산시, 유용미생물 농업 활용 농산물 명품화에 기여한다

경산시는 오는 26일부터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농업육성 및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해 자체 생산한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무상 시범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미생물의 배양 공급을 전담하는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3-2014년 1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60㎡의 친환경미생물실을 건립, 멸균배양기, 진탕배양기, 혼합조, 저온저장조, 자동포장기 등 40여종의 장비를 갖추고 올해부터 연간 76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한다.

지난 1-2월 신청을 통해 결정된 미생물 이용 희망농가 450호를 대상으로 매주 목, 금요일에 무상 시범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비료제조업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이번에 공급할 미생물인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은 토양개량, 병충해 예방 및 당도, 저장성 증대에 효과가 있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은 물론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김상해 소장은 "친환경미생물 공급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으로 경산시 농산물 명품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최영조 경산시장은 12일 오전 경산컨벤션웨딩 연회장서 열리는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축하를 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12일 오후 성내동에 신축된 영천시교육문화센터 준공식에 참석, 시민사회교육의 장 신축을 축하한다.



김경곤 성주군수는 12일 오전 성주문화원 3층에서 열리는 '성주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성주 월항면, 3백여명 인력 투입 강풍에 날린 비닐하우스 복구 총력

성주군 월항면은 오전 10시 강풍으로 인해 면 전역에 걸쳐 30여농가 100여동(6ha)의 비닐하우스 철근이 엇가닥처럼 휘어지고 비닐이 벗겨지는 등 피해가 발생,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침부터 몰아친 강풍으로 인해 특히 일부지역(월항면 인촌리)에는 대부분 참외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벗겨지고 철근이 휘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 면사무소, 군직원, 농협, 인근 기업, 주민 등 3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철근을 바로 세우고 비닐을 덮어 피해 복구에 힘썼다.

홍성학 인촌리장은 "피해 복구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인촌리는 지형상 강한 돌풍이 자주 발생해 상시피해발생지역으로 참외 농가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고 말했다.

이근서 월항면장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 빠르게 피해 복구를 완료할 수 있어서 다행이며, 비닐날림방지를 위해 고정끈으로 다시 묶고 모든 하우스에 대해 점검토록 당부했다.

김두상 기자

## 시민이 행복한 복지영천 만든다

영천시, 2015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홍보나서

영천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제도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물려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보활동 전개 및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3월부터 행정자치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총괄반과 통합조사반, 홍보반, 민원대응반으로 구성되는 맞춤형복지급여시행단(TF)을 조직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소관부서 다원화에 따른 집중홍보를 실시해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김일만 기자

고령, 농업인 스마트폰 앱 활용한 e-비즈니스 능력배양 교육 추진

고령군은 지역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e-비즈니스 능력배양 교육을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매주 월, 화, 목, 총 10회)에 걸쳐 국악당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N미디어 석선옥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스마트폰 앱 활용, 사업자용 카카오톡

김양수 기자

새로운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및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읍면동 직원 및 이통장 교육을 시작으로 개별 안내와 함께 시 홈페이지와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까지 제도 시행 전후 3개월 동안 민간 보조인력을 채용해 읍면에 각 1명씩 배치해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규신청자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신청시기가 도래하는 오는 5월부터는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몰려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긴 겨울 이겨낸 당도 높은 멜론을 따어요"

고령 친환경 성산멜론 첫 출하 한국유기농업 생산지회 대표 강정열씨 하우스서 60박스 출하

고령군 성산면 관내 비닐하우스에서는 긴 겨울을 이겨내고 당도 높은 멜론이 첫 출하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30일 파종을 해 지난 5일 정식을 한 후 날씨가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도, 농민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한국유기농업 생산지회 대표 강정열(58) 씨 하우스에서 60박스/10kg를 출하했다.

이날 생산자 강정열씨는 "올해 과일 가격등향이 전년에 비해 떨어져 마음은 편치 않아도 소중하게 관리해온 포장이라 수확한 과일을 바라보는 마음은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남지 생산면장은 "힘들게 생산되는 농산물은 제값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유통체계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고령군 성산면 관내에서는 101호, 74ha, 1111동에서 멜론이 생산 재배되고 있으며, 3월말이면 본격적인 출하가 예상돼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양수 기자

칠곡군  
CHILGOK GUN

1914~2014 세한백년 위대한 유산

# 호국평화의도시 칠곡

농경사개방회 문화대극단

#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8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영양

## 안동,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 선정

안동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 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프로젝트' 공모에 응모해 안동중추도시생활권의 '다문화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지역행복생활권은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63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했으며, 안동중추도시생활권은 안동시와 연결한 의성, 청송, 영양, 예천군 5개 시군으로 구성했다. 김용구 기자

## 예천 보건소, 치매쉼터 '생생기억교실' 운영

예천군 보건소에서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제2경증치매환자 및 인지기능 저하자, 치매 고위험군 등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 생생기억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쉼터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치매 치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물론 치매가족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의 생생기억교실을 통해 치매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치매 진행속도를 늦추는데에 목적이 있다.

지난해 예쁜 치매쉼터 8개소를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85%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했으며 프로그램 참여이후 어르신의 삶의 질과 일상생활능력이 향상되고 인지능력이 강화되는 등 치매예방과 지연에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를 하리면 부초리 경로당 등 11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각 읍면마다 운영담당자, 방문간호사, 대학생 치매검진사가 3인 1조로 구성되어 24회에 걸쳐 방문 운영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생생기억교실은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한 미술, 음악, 감각자극, 신체단련 등의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립안동노인전문병원과 경북도립대학교와 연계해 메타기억요법, 아로마치료, 한방진료, 발 마사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황원식 기자

## 영주, 한솔밥으로 농촌마을을 공동체로

영주시가 농번기에 농촌의 부족인력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의 농작업 참여 확대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단산면 구구1리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마을회관 등 기존 공동시설을 활용, 일정규모이상 마을회, 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을 대상으로 농번기 공동급식에 필요한 시설정비, 취사도구 등 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구구1리 공동급식소는 마을회관을 이용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방정비, 가전제품 및

기타 취사도구를 구입해 3월부터 연간 90일 이상 농번기에 급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사철 식사를 챙기기 힘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촌마을 지역주민의 화합도모를 통해 농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영주, 행복생활권 상생발전 통하다

## 소백산권 영주시·단양군 영월군 희망 함께 나눠...

영주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 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프로젝트' 공모에 응모, 최종 사업이 선정돼 지난 10일 선정 인증서를 받았다.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이 연계한 소백산생활권의 '천연생약제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소백산 지역의 우수한 천연 생약자원을 상생협력을 통한 제품개발과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생활권 선도사업은 기존 부처사업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창조적 신규사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영주시가 신청한 총 사업비는 29억원 정도이며, 최종 사업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전문 컨설팅을 거쳐 4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영주시 투자전략실 관계자는 "선도사업 이외에도 연계사업 3건, 단독사업 9건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했으며, 올해 7월 연계 및 단독사업의 선정시에도 주관사인 영주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영양 산불방지 발대식·캠페인

영양군은 2015년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영양군산림조합, 산림법인, 관련공무원 등 산림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며 행사 후에는 어깨띠 및 산불조심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해 영양군 읍내에서 산불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에 발대식을 갖게 된 감시원은 매일 산불취약지를 순찰하며 산불감시, 계도단속과 산불진화의 임무를 수행하며 산불진화대원은 평소에는 산불예방활동 산림보호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산불발생시 즉각 출동해 초동 진화한다.이 밖에도 군은 산불예방 홍보와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차량용 깃발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홍보활동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산불발생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권윤동 기자

## 안동대 의과대 설립 만장일치 채택

### 경북 북부지역 시·군 의장협의회 지역 공동 발전방안 심도있는 토론

경북지역 공동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제 87차 경북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가 지난 10일 영양군 산촌생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월례회에서 김시흥 영양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낙후된 경북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도청이전을 통해 경북 북부권 시대가 도래한 만큼 경북 북부지역 12개 시군의 역량을 결집,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사람을 터전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경북 북부지역은 의과대학과 3차 진료기관이 없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있으며 예측불허의 각종 대형사고와 농·산업재해에 대비하고 '유병장수(有病長壽)'시대를 맞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안동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아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경북도 북부지역의 공동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권윤동 기자



### 예천, 상세주소 부여 확대 시행

예천군은 기존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부여해오던 동·층·호의 상세주소 제도를 대학,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군의 개별건물에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 시행한다.

건물군(群)이란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

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그 동안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군 전체에 하나의 도로명주소만 부여했기 때문에 우편물이나 택배 반송·분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기관이 해당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예천군은 대상 건물군을 파악해 6개소 56동을 직접 방문해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황원식 기자

## 문경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946억 신청

### 6차 농업 지원등 35개 사업 전년 대비 226억원 31%증가

문경시는 지난 9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2015년 문경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2016년 문경시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문경시에서 신청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총 35건의 사업에 946억원을 신청하기로 심의했으며, 이는 전년도 31건 720억원 보다 226억원, 31%가 증가한 금액으로 내년도 많은 국·도비 확보와 문경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문경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심의회는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문경시 농업정책 전반의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문경시 홈페이지



지와 반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 지난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오늘 심의회에 상정돼 획일적인 하향식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으로 차후 다양한 농업인들의 욕구 충족은 물론 농업이 타 산업에 뒤지지 않는 전망 있는 산업으로 발돋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회를 주관한 고윤환 시장은 "새롭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만이 문경농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오재영 기자

## 문경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문경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안보·재난 사태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제397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천만 생활안전 요원양성으로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자 전 국민 민방공 대피훈련 및 생활안전·안보 교육,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시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 민방공 대피훈련 공습 경보가 시작되면 15분간 주민대피 및 대피소



에서 다양한 생활안전·안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시민들은 민방위대원, 공무원 등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대피시설로 대피하면 된다. 차량통제는 없으나 운행 중인 차량은 갓길로 정차하고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된다. 오재영 기자

물맑은, 고장 정직한 농부 예천

예천 Yechaonsaem

새움

예천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Clean 예천

#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9

## 의성 금성초 '오감만족' 즐거운 소방안전체험교육

의성소방서는 지난 10일 오전 의성군 금성면에 위치한 금성초등학교에서 '오감만족' 즐거운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금성초등학생·병설유치원생 90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소방안전교육과 이동안전체험차량 체험교육 순으로 실시됐다. 이동안전체험차량에는 △지진체험 △지하철 문개방 △연기·압축·비상탈출 등을 체험

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하고 있어, 담당 소방관의 자세한 설명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을 직접 체험해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의성소방서 김홍진 예방안전과장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소방안전교육에 많은 신청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구미 김천  
상주 의성  
군위 청송

# 구미시, 대한민국 최고 청소년 행복도시 만든다

## 11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준비 국내 최대 규모 청소년 종합 행사

구미시는 오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구미코에서 열리게 되는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준비에 한창이다.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국내 청소년 행사 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청소년 종합축제로, 2005년 시작된 이래 광역지자체에서 개최돼 왔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구미시에 처음 개최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여성가족부와 경북도, 구미시의 공동주최로 구미시가 대한민국 대표 기업 도시일 뿐 아니라, 청소년 육성에도 적극적인 교육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방향은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표출하는 예술박람회,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박람회,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는 안전박람회, 청소년활동과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1:1 매칭이 가능한 경제박람회로 추진된다.

주요행사로 는 개·폐막식과 청소년의 날 기념식 등 공식행사와 함께 진로탐색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상설부스 100여개가 운영된다.

또한 인문학과 문화, 직업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 토크 콘서트, 학술대회와 함께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구미지역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청소년 문화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지역 청소년 동아리 무대 등으로 구미 청소년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

가 될 것이다. 또한 행사 전반에 시민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가족은 물론 지역시민이 함께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남유진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투자는 구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이다. 43만 구미시민의 역량으로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기환 기자



남유진 구미시장은 11일 오후 민방위대피소에서 열린 2015년 FE(독수리)연습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12일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지역농협조합장 당선자 당선증교부 행사에 참석한다.



김영남 군위군수는 12일 부계면사무소(11시 효령면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군위자치대학원 입학식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12일 오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생활개선의성군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 상주시의회, 의원국내연수로 선진의회 구현

### 전문 강사 초빙,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 기법 연수 공부 연구하는 의회상의 구현

상주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거제시 일원에서 의원 15명과 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의원국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의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연수기간 동안 한국산업기술원 정장 수 박사과 최민수 박사를 강사로 초빙,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기법과 실천사례에 대한 특강을 듣고,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우수 지역특성화사업 현장에 대한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



남영숙 시의회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우고 익힌 전문 지식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생산적인 의회 운영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 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원연수를 통해 제7대 상주시의회의 올바른 활동방향과 전략을 구상해 나가고,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한 의정 역량강화와 의원과 직원 상호간의 화합을 통해 생산적인 선진 의정 구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재영 기자

## 군위군,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군 위군은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안보·재난 사태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제397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민방공사태시 즉각적인 대피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천만 생활안전 요원 양성으로 국민행복을 실천하고자 전 국민 민방공 대피훈련 및 생활안전·안보 교육, 긴급자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시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자체방호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군에 따르면 오후 2시 민방공 대피훈련 공습경보가 시작되면 15분간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며, 운행 중인 차량 또는 좁은 골목길이나 길모퉁이 주·정차 차량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들이 이번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 재난대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유근 기자

## 의성, 봄맞이 일제 대청소 "모든 더러움 한방 해결"

의성군은 새로운 봄이 싹트는 봄을 맞아 군민 8천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봄맞이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의성군은 3월 한달동안 봄맞이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특히 11일을 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 오전10시부터 18개 읍·면별로 주민, 기관 및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쓰레기 수거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에 군 행사로 오전 10시 새마을회 등 20개 민간단체, 주민 500명이 참여, 아사천, 남대천, 성조천변 및 의성을 소재지 전역을 청소해 폐기물 20톤을 수거했으며 무단 투기 및 환경보호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박재성 기자



## 청송,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 실시

###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공무원과 관내 건설업체 대상, 각종 공사 부실시공·안전관리 예방 교육

청송군은 지역에서 시공되는 토목·건축 등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1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공무원과 일반건설업, 레미·아스콘 제조업, 전문건설업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품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 강사로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김진철 수석 연구원을 초청해 '건설공사 콘크리트품질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에 이어 이호문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콘크리트 주요시공'부문에 대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청송군은 올해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위해 4개 분야 39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단'을 운영해 합동측량 및 실시계획을 시행 하였으며, 총 437건(사업비 499억 1100만원)에 대해 실시계획을 마무리해 건설공사 조기발주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창재 기자

## 상주시, 2015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

### 민관합동 점검반 편성 재난취약시설 등 점검

상주시는 사회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안전취약요소를 개선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5 국가 안전대진단'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안전관리자문단(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20명과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원을 확보, 연차별 조치가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 산하에 △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하는 '총괄기획반' △부서별 안전취약 시설 및 안전신고 사항을 점검하는 '현장점검반' △상황 전파 및 상황판단 회의개최 등 상황 총괄 관리하는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오재영 기자

# 대한민국 스포츠 메카

## 12만평, 종합스포츠타운이 있는 김천으로 오세요



###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는 해마다 국제 및 전국단위의 대규모대회 50여개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수영팀 등 국내외 100여개 팀이 찾아오는 전지훈련 최적지로 매년 30만명의 스포츠인이 김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www.gimcheon.go.kr



# 대구시, 세계섬유시장으로 수출 관문 활짝 열다

첨단신소재와 슈퍼소재로 20여 개국 해외바이어와 상담뜨거워

2015 대구국제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가 역대최대 규모인 국내·외 11개국 34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3일간의 비즈니스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행사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윤상욱 국회의원, 김상훈 국회의원, 이완영 국회의원, 박정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인선 경상북도정무부지사,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이의열 PID조직위원장, 성기학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김동구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주시경 대구경북지역본부 세관장, 김흥빈 대구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국내주요인사와 디바바 아브테다 주한에티오피아 대사, 터키오스만베이섬유협회 일케르 카라타쉬 회장을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중동국가 등 국내외 참가업체 대표와 주요바이어들이 참석했다.

이의열 PID조직위원장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섬유업계의 고부가가치 신소재개발을 위한 강한 의지가 이번 박람회 참가열기로 나타나고 있고 세계적인 섬유산업인 대구·경북의 우수한 고기능·첨단신소재를



중심으로 산업용 융합소재가 강화돼 국제적인 특화소재 박람회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어 향후 FTA세계섬유시장으로의 수출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효성, 코오롱, 휴비스, 영원무역, 성안 등 275개사의 국내기업과 11개국 65

개사의 해외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첨단기능성 신소재, 원사, 교직물, 니트, 친환경소재, 디지털프린팅, 텍스타일디자인들을 대거 출품했고, 특히 산업융합용 슈퍼섬유 연구개발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국내외 산업용관련 융합소재와 제품개발의 발전현황을 한눈에 볼 수

가 있어 해외바이어들과 국내참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터키바이어 참관단을 구성, 이번 PID를 방문한 터키 최대의 섬유시장인 이스탄불-오스만 베이섬유협회 일케르 카라타쉬 회장은 "한국 최대의 화섬섬유산업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의

차별화된 한국의 첨단기능성소재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분위기가 만족스럽고, 향후 FTA시장개방으로 터키섬유시장과 대구·경북 섬유산지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무역증대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밖에 중국, 대만, 인도, 미국, 독일, 홍콩 등 65여개사의 해외참가업체들도 참가하고 있어 국내참가업체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프랑스, 이태리, 터키, 중동지역 등 20여개국의 해외바이어와 LG패션, 인디에프, 이랜드, 보크레 등 국내대형의류브랜드와 동대문종합상가, 광장시장 내수바이어들도 대거 참가하고 있어 이번 박람회의 상담성과 1억 9000만 불과 계약예상성과 8000만불의 목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제27회 대구컬렉션', '2015글로벌섬유비전포럼' 등 섬유패션산업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어 전시장 상담분위기가 뜨겁고 '창조융합수퍼섬유관', '섬유체험관', '소재&패션소싱관' 등 다양한 바이어페션쇼, 이벤트 등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풍성한 섬유산업 비즈니스축제가 되고 있다.

송종관 기자

## 특성화고생, 맞춤형 인력양성 청년 취업난 해소

나노융합실용화센터, 지역 특성화고 (9개교) 3학년 28명 나노기술교육

(재)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에서는 대구지역의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나노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한다.

나노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특성화고 학생의 조기취업 및 선취업·후진학 정책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 및 교육청이 2011년 12월 나노 기업과 MOU를 체결, 나노융합실용화센터의 석·

박사급 고급인력과 이미 구축된 고가의 첨단 나노장비를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참여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청에서 28명을 선발, 시행할 예정이다.

총 교육시간은 700시간 이상으로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 유망 중소기업과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을 수료한 32명 가운데 군 입대자를 제외한 학생들이 지역의 나노 기업의 산업인

력으로 취업되었으며, 특히 7명이나 채용한 ㈜금오EMS의 정병만 차장은 "나노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비교육생보다 현업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고 기업 내에서 현장 적응력도 빠르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대구시 윤진원 기계에너지과장은 "특성화고 생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의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과 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덕 기자

## 조달청-우리은행, 해외시장진출기업 지원



수출 조달기업에 금융거래 우대·특화된 서비스 제공

조달청과 우리은행은 1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 중소기업(G-PASS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3년 전부터 G-PASS기업을 선정,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구매담당 등 수출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이 추천하는 G-PASS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과 특화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자금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기업에는 보증비를 상향,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수출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전담 컨설팅팀 운영 등 수출업무 전 부문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이번 협약에는 양 기관은 조달청이 발굴·계약하는 전통문화상품의 판로지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자금과 각종 수출 경험을 지원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유망기업에 대해 맞춤형 수출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김치영 기자

## 대구가톨릭대 '신라 문화콘텐츠 디자인센터' 개소



대구·경북 문화콘텐츠 산업 인재양성·디자인 지원사업 추진

대구가톨릭대 '신라문화 디자인 기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11일 전문 디자인센터(이하 센터)를 열고, 대구·경북 문화콘텐츠 산업 인재양성 및 디자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은 이날 교내 서요한관 1층에서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는 326㎡ 규모에 문화콘텐츠 및 디자인 관련 전문 장비를 구축하고 창의적인 문화콘

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 또 지역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의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디자인 재능기부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사업단은 전국 대학특성화사업단 중 전국 7대 디자인 특성화 사업단이자, 강원·경북지역 유일의 디자인 사업단이다.

사업단은 시각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관광경영학과가 참여해 문화콘텐츠 디자인 융·복합 학문을 구축하였고, 문화예술 분야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11일 열린 대구가톨릭대 신라 문화콘텐츠 디자인센터 개소식에서 흥철 총장을 비롯한 귀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최경수 기자

'신의 물방울 사업' 참여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청도군과 달성군, 코레일, (사)위피는 11일 대구 달성군청에서 두 지역의 특산물인 '감'과 '토마토'를 주제로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고, 창조적 가치를 지닌 관광 상품으로 재구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신의 물방울 연계 6차 산업 창출사업(이하 신의 물방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도군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신의 물방울 사업)에 선정돼 2016년까지 전체 사업비 가운데 90%를 국비 확보한 바 있다.

신의 물방울 사업은 청도군의 감 와인과 달성군의 토마토 와인을 주제로 청도군과 달성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지역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이다.

이 협약에 따라 청도군은 신의 물방울 사업 추진 공동사업단을 구성, 수도권 등 전국에서 출발하는 와인열차를 운행하고, 대구공항과 평택항 등을 통해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거리를 갖춘 관광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용규 기자

영천, 해빙기 건설공사장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영천시는 11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및 토목 대형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로 지정, 관리중인 완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현장과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및 관리현황을 점검했으며, 건축·토목분야 민간전문가와 시설관리 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추진됐다. 김일만 기자

## 청도반시 염색제품,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참가

청도군은 11일-13일대구엑스코에서 펼쳐진 2015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가했다.

대구국제섬유박람회는 최신 섬유관련 정보 및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섬유소재 중심의 비즈니스 전문전시회이다. 우리군 청도천염색연구회(회장 김종철) 회원 20여명이 시설텐

공동브랜드로 청도반시를 원료로 한 감물염색 제품을 선보였으며 청도반시의 우수성과 원단, 의류, 소품 등 다양한 염색제품을 전시 홍보, 청도 천연염색산업의 경쟁력강화에 힘을 보탰다. 강용규 기자

## 5개 협력회사 대표와 안전·청렴협약 체결



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 불법하도급 근절,부패척결로 청렴사회 구현양장

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1일 오전 사옥 경영상황실에서 5개 협력 회사 대표를 초청, 청렴추진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청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압 협력회사인 (주)광덕전력, (주)태광전력, (주)명전사와 저압 협력회사인 (주)한불이엔지, (합)성림기업 등 5개 협력

회사 대표가 참석했으며, 청렴 동영상 '청렴, 미래를 위한 약속' 시청, 오태석 전력사업처장의 반부패·청렴 실천의지 및 동참·협력 당부, 협력회사 대표와의 청렴협약서 서약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오태석 전력사업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한전과 협력회사는 상호협력해야 하는 동반자로서 무엇보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라며, 불법하도급 근절 및 부패 척결 등을 통해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종관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전국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다

### “핵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광풍을 넘어 쓰나미가 몰려올 태세다. 30년 수명다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돌입하자 핵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절규의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4주기 맞아 시민단체들은 ‘노후원전 폐쇄 촉구’를 선언했다. 새정연 장하나 의원에 후쿠시마 원전참사 4주기를 맞는 11일 국회에서 특위 설치해 노후원전 안전성 검증하자는 논쟁을 냈다. 장 의원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노후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마치 지역정치 차원의 문제로 풀어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민의 안전문제에 어떠한 정치적 셈법이 고려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이 상업운전 개시한지 40년만에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노심용융과 대규모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전 세계에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각성하게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듬해에 열린 우리나라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노후원전 폐기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국민수렴을 거쳐 원전계획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후폭풍... 원전 기술기준 신뢰도 '하락'

지난 2월 27일 금요일 새벽,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이 결정됐지만 원전 안전성을 사이에 둔 진실공방은 여전히 치열하다.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경제성 측면에서 수명연장을



결정했지만, 일부에서 원전 기술기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 보다 ‘최신안전기준’과 관련된 문제점이 상당수 드러나게 됐다”면서 “일각에서는 좀 더 안전한 원전을 위해 만든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새로운 기준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기술기준의 신뢰도를 의심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린 안전성 논란의 핵심은 ‘최신안전기준’이다. 논란이 많은 ‘R-7’은 1991년 캐나다에서 만든 ‘켄드형 원전의 격납건물계통에 대한 요건’으로, 1970년대 건설된 월성1호기에는 적용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회의 당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주장한 측은 “월성1호기에 ‘R-7’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공식 기관에서 수년에 걸쳐 심사한 결과 현재 설비로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수명연장을 반대한 측은 심사에 상관없이 최신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 얻지 못한채 원자력발전 중심 에너지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국회서 특위 설치해 노후원전 안전성 검증하자

‘R-7’이 만들어질 당시 캐나다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 새롭게 기술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원전의 안전설비 및 기술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국내 기술기준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해외 원전 선진국들의 경우 △항공기 충돌이나 테러와 같은 강한 충격에 대비해 원전의 벽체를 보강하거나 이중 격납 설계를 적용하고 △원전이 침수되거나 전기가 끊길 경우 즉각 냉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비상발전기를 호당 4대를 갖추도록 하며 △비상전력으로 사용할 ‘대체교류전원(AAC)’을 원전 1호기 당 2대를 설치하는 등 국내 원전에 비해 상당부분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원전 기술기준’의 명확한 검증과 국내 원전 적용 여부를 파악,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수년을 끌어온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어렵게 마무리를 지었지만, 앞으로 더 큰 논란과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슨 일이든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게 우선”이라며 “계속운전 가능성을 검

증하는 과정에서 하락한 기술기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원전이 이를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핵없는세상대구시민행동 ‘월성1호기 폐쇄’ 촉구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은 1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와 함께 폐쇄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일본 후쿠시마 핵 사고가 난 지만 4년을 맞아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회견에서는 노진철 전 전국달학교수모임 대표가 ‘후쿠시마 핵사고와 에너지 정책’, 권숙례 생협활동 연합회 의제기획팀장과 황동환 천주교 신부는 각각 ‘월성1호기 재가동과 생명안전’과 ‘원전과 윤리’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



울산시민사회 원로 24명은 1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노후원전 폐쇄 및 탈핵사회를 위한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원로는 환경과 교육계, 법조계,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선, 더 이상 노후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와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월성1호기 민간감시단장으로 1년 6개월여 동안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한 김연민 교수(울산대학교)도 이번 선언에 동참했다. 김 교수는 “민간감시단이 월성1호기 안전여부를 검증한 결과, 수명연장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민간감시단의 보고서가 과소평가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안전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통과시킨 만큼, 지역 사회가 크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원로들은 원자력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주 월성원전과 부산 고리원전 사이에 끼어 있는 울산은 울산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30km 내에 총 1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장태원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행정구역 단위로 사고 하지만 원전이 작용하는 범위는 행정구역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원전 숫자와 수명, 고장 횟수 등을 토대로 세계 각 나라의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다음으로 원전사고 위험지역으로 울산을 지목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치역 기자



# 얼라이먼트가 잘못되면 어드레스 역시 틀어지게 된다

[김덕엽의 이 지식]

## 올바른 어드레스와 얼라이먼트 <5>

어드레스(Address)와 얼라이먼트(Alignment)에 대해 설명하겠다.

필자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어드레스와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할까. 그냥 같이 묶어서 할까, 아니면 따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까.

얼라이먼트란 사격을 할 때 타겟(Target)을 향해 조준선을 정렬하는 것을 말하며, 에이밍(Aiming)이라고도 한다.

어드레스는 사격을 위한 모든 준비 상태를 마친, 격발 직전의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두 가지는 실과 바늘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며, 골프에서 그 어떤 기술보다도 중요하다.

### ■ 첫걸 없는 김치다

요즘 TV 레슨 프로그램을 보면 정해진 방송 분량과 시청률을 의식한 탓인지 어드레스와 얼라이먼트를 대충 한 데 얼버무리려 간략하게 설명한다. 비거리 향상 등 스킬(Skill) 위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는 필자가 볼 때 마치 김장을 할 때 첫걸을 넣지 않은 것과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드레스와 얼라이먼트를 같이 다루되, 얼라이먼트를 별도의 장으로 구분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

어드레스란 클럽을 잡고 볼을 치기 위한 모든 일련의 준비가 셋업(Setup)된 상태를 말한다. 어드레스 상태만 봐도 샷(Shot)의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올바른 어드레스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 ■ 똑바로 보고 쓰라

표적을 잘못 설정하면, 즉 얼라이먼트가 잘못되면 그에 따른 어드레스 역시 틀어지게 된다. 아무리

훌륭한 샷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 △나이스 미스 샷(Nice Miss-shot)

TV 중계 화면을 보면 아주 드물지만 어느 선수가 샷을 했고, 그 결과는 핀에 근접한 굿샷(Good Shot)이 나왔다. 그러나 샷을 한 직후 선수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불만스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분명 볼이 잘못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얼라이먼트와 어드레스는 의도된 것이 아니고, 분명 미스 샷(Miss Shot)을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다. 이것을 나이스 미스 샷(Nice Miss-shot)이라고 한다.

선수들 역시 인간인지라 매 샷마다 심적, 체력적 부담으로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심지어 선수들도 어려운 코스일수록 큰 부담감을 느껴지는 것이 얼라이먼트와 어드레스다. 일반 골퍼들이 어렵고 힘들게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 ■ 예비군의 사격

예비군 훈련을 받아본 남성 골퍼들은 이 말을 금방 알고 헛웃을 지을 것이다. 사격 훈련을 할 때 각각 실탄을 세발씩 지급하고 10여명이 동시에 각자의 표적지에 사격한 후 결과를 확인해보면 단 한발도 안 맞은 표적지부터 심지어 7발 이상 맞은 표적지까지 각각각색이다.

이것은 분명히 얼라이먼트와 어드레스가 잘못 된 탓이다.

### △300 야드보다 200 야드가 낫다

필드에서 파4 360 야드 코스의 좌, 우 도그레이크를 가정해보자.

IP(Intersection Point) 지점을 향해 정확한 얼라이먼트와 어드레스로 200 야드 페어웨이로 보낸 샷과 오로지 '남자는 힘이다'란 논리로 좌, 우측으로 300 야드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OB(Out of Bound) 아니면 다행히 러프(Rough)일 것이다.

그 다음 세컨 샷은 어떨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만약 당신이 똑바로 300 야드를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골퍼라면 아마 직업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하면 얼라이먼트와 어드레스를 잘 할 수 있을까, 당신의 눈부터 찾아라

올바른 얼라이먼트와 어드레스를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시력(主視力)을 찾는 것이다.



사진과 같이 몸 가운데 볼을 놓고 손으로 삼각형을 만들고 눈을 좌, 우측으로 번갈아 감고 한쪽 눈으로 볼을 쳐다 보라. 조금씩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볼이 정중앙에 보이는가. 그게 바로 당신의 주시력이다.

일반적인 경우 이런 방법으로 주시를 찾는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었으니 이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 바란다.

### ■TV 중계 방송 볼 때도 제대로 보라

TV 중계를 볼 때 선수들이 볼 뒤에 서서 한쪽 눈을 감고 목표 방향과 지점을 설정 한 뒤 즉, 얼라이먼트를 한 뒤 어드레스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후 다시 한번 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최종 점검을 한다. 이때 선수들과 일반 골퍼들 눈에 보이지 않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선수들의 경우 얼라이먼트를 한 눈과 재차 확인하는 눈이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 골퍼의 경우 목표 지점 확인은 왼쪽 눈으로 하고 어드레스 이후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더 확인할 때는 다른 쪽 눈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연습은 실천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장에서는 잘 맞는데 필드만 나가면 에이밍 즉, 얼라이먼트가 안 되거나 불안해서 샷이 잘 안 됐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연습장에서는 타석이 정중앙을 보도록 배치돼 있고, 사각으로 틀어 잡힌 매트에서 샷을 하기 때문에 어드레스나 얼라이먼트란 용어가 뭐지 모르는 초보 골퍼도 너무나 당연하게 정중앙을 보고 연습한다.

그러나 실제 필드는 어떤가. 좌, 우 도그레이크나 핀 위치도 앞, 뒤, 좌, 우 천차만별이다.

### ■사각보다 둥근 원형이 좋은데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가운데 타석에서 맹목적으로 가운데만 보고 공 많이 치려고 하지 말고 가정자리에서 대각선이나 목표 지점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타석 매트를 사각형이 아닌 원형으로 제작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혹시 독자 중 관련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시도 해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제안이라 생각한다.

## PGA 최경주, 벨스파 챔피언십 세 번째 우승 도전...



### 13일 개막 케빈 나, 배상문도 도전장

'탱크' 최경주(45·SK텔레콤)가 자신에게 두 번의 영광을 안겨준 탬파베이에서 9년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최경주는 11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하버의 이니스브룩 리조트(파 71·7340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벨스파 챔피언십(총상금 590만달러)에 출전한다.

최경주는 이 대회 역대 최다 우승자다. '탬파베이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2002년, '크라이슬러 챔피언십'으로 열린 2006년 등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역대 이 대회에서 두 번의 우승을 기록한 선수는 최경주와 레티프 구센(남아프리카공화국) 두 명뿐이다.

최경주는 올 시즌 PGA투어 5개 대회에 나섰지만 한 번도 '톱10'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 좀처럼 좋은 기록을 내지 못하고 있다. 컷타락한 한 번도 없었지만 최고성적은 공동 22위에 불과했다.

지난해 두 차례 준우승을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냈던 최경주로서는 2번의 우승 경험이 있는 이번 대회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재미교포 케빈 나(32·한국명 나상욱·타이틀리스트)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대회 초반부터 상위권을 유지한 케빈 나씨는 4라운드까지 끈질긴 추격전을 벌인 끝에 존 샌든(호주)에 1타 뒤져 아쉬운 2위를 기록했다.

배상문(29·캘러웨이) 또한 이 대회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배상문은 PGA투어 첫 시즌이던 지난 2012년 이 대회에서 연장 점전을 벌인 끝에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불참하는 가운데 세계랭킹 3위 헨릭 스텐손(스웨덴), 4위 아담 스콧(호주) 등이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이밖에 지난 3일 끝난 혼다 클래식에서 우승자가 이 대회 코스레코드(61타) 기록 보유자인 파드리크 해링턴(아일랜드), 디펜딩 챔피언 존 샌든(호주) 등도 상위권이 기대되는 선수들이다.

## "롯데구단 CCTV 선수 감시는 인권침해"



프로야구 롯데지인츠 구단이 원정경기때 숙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의 출입을 감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구분능한 국가인권위원회(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취지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롯데지인츠 구단이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개막 전후로 선수들의 원정경기 숙소 출입 상황 등 사생활을 감시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현행법상 조사 및 시정·구제 조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스포츠계의 관행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롯데지인츠 구단은 원정경기 시 선수들이 묵는 호텔의 협조를 받아 2014년 시즌 개막 직후인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약 2개월간 숙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 시간 선수들이 출입하는 상황을 체크한 뒤, 이를 운영매니저가 메모해 구단 측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속 선수들에 대한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행해졌다. 이에 대해 당시 구단 측은 "선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경기나 훈련 등 일과와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이 보장돼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프로야구를 비롯한 국내 스포츠계에서 선수의 인권 보호 보다는 선수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통제를 우선시하는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을 수립·실행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0년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는 방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구단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구단 내 비인권적인 요소를 점검·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단 측은 "KBO와 한국 야구계, 롯데지인츠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 방침을 행정적 절차로 여기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일겠다"고 말했다.

## 윤채영·전인지·홍란 등 KLPGA 홍보모델 선정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10명 선발 공식 발표

윤채영(28·한화)과 전인지(21·하이트진노) 등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2015년 KLPGA 홍보모델에 선정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10일 윤채영과 전인지를 비롯해 고진영(20·넥스), 김민선(20·CJ오쇼핑), 김자영(24·LG), 김혜윤(26·BC카드), 안신애(25·해운대비치), 양수진(24·파리게이츠), 허윤경(25·SBI저축은행), 홍란(29·삼천리) 등 10명을 '2015년 제7대 KLPGA 홍보모델'로 공식 발표했다.

KLPGA측은 "지난해 홍보모델은 갤러리 에티켓, 캠페인 영상 촬영과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더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KLPGA 홍보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채영은 KLPGA 홍보모델이 처음 시작된 2009년부터 7회 연속으로 선정됐다. 윤채영은 "7회 연속 홍보모델에 선정돼 매우 영광이다. 매년 예쁘게 봐주시는 만큼 협회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모델 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자영, 안신애, 양수진, 전인지, 허윤경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홍보모델에 선정되며 인기를 재확



인했다. 또 홍란과 김혜윤은 지난 2013년 이후 홍보모델에 다시 뽑히는 기쁨을 누렸다.

홍란은 "올해 다시 뽑아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다. 점점 KLPGA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다른 선수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발된 홍보모델 10명은 3월 중 사진 촬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촬영되는 사진은 달력, 연하장, 스크린세이버, 월페이퍼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활용된다.





대구시립극단 예술감독에 최주환 씨  
찾아가는 공연 등 활성화 밝혀



대구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제5대 대구시립극단 예술감독에 최주환 씨(47·사진)를 내정했다.

최주환 내정자는 영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 석사과정(연극전공)을 졸업했으며,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예술감독 및 대덕문화재단 예술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현재 극단 초이스이더 대표로서 매년 다양한 연극 작품을 무대에 선보이고 있으며, 제19회 대구연극제 연출상, 제17회 대구연극제 남자 우수연기상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최주환 내정자는 “대구시립극단을 대중성과 공공성, 예술성을 겸비한 극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극단을 만들기 위해 시민연극교실, 찾아가는 공연 등을 활성화 하고, 국·공립극단 만 아니라 민간극단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시립극단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구시는 최주환 내정자에 대해 녹서류 제출 및 결격사유 조화 등을 거쳐 임기 2년의 대구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3월 말에 위촉할 예정이다.

송종관 기자



## 김시영 바르게살기운동 영주시협의회장 취임

지난 10일 새마을회관 강당에서 장욱형 영주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각 기관·단체장,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2009년부터 6년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발전을 위해 앞장서 일한 제8대 협의회장 김인한씨는 이임, 김시영(62)씨가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해 앞으로 3년간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신임 김시영 회장은 “국민운동 단체로서, 진실,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선진 한국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전상기 기자



## 조현준 문경 개포남성이용소방대장 취임

문경소방서 개포남성이용소방대는 10일 개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포남성이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고시보 문경소방서장을 비롯, 이현준 예천군수, 안희영 도의원, 김은수·권영일 군의원 및 각 기관단체장, 문경시 및 예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서는 이임 정연홍 대장에게 경북도지사 공로패, 예천군수 공로패, 소방시장 공로패, 예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재직기념패, 개포의용소방대의 공로패를 전했다.

정연홍 대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대원들과 함께 지역의 안전과 굿은일에 함께 했던 것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 할 것이며, 개포의용소방대가 으뜸가는 의용소방대가 되도록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조현준 신임대장(52)은 “명예롭게 퇴임하는 정연홍 대장님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원들의 뜻을 모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도록 신뢰받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 구미 인동동 주민, 장학재단에 7700만원 기탁

## 주민에 동참 권유 총 53명 참여

구미시 인동동(동장 박세범)은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인동동 주민 및 단체에서 모금한 7700만원을 (재)구미시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재)구미시장학재단은 2008년 설립돼 지난해 2월에 기금조성액 200억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이 이어져 현재 231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구미시는 세계적인 IT산업도시로 이에 걸맞는 교육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2007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이어 2008년에는 교육특구 지정과 더불어 구미와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과 품격 교육 환경 조성의 원동력인 (재)구미시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미시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문학교 설립, 지원 뿐만 아니라 서울학숙을 건립하는 등 구미의 인재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동참하고자 인동동에서는 지난 1월 5일부터 3월5일까지 2개월간 장학금모금 집중기간을 운영했다.

인동동은 각종단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1대1 개별면담을 통해 장학금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참을 권유한 결과 주민 및 7개 단체를 포함 총 55명이 참여, 7700만원이란 큰 금액을 모금하게 됐다.

이번 장학금 모금운동을 추진한 박세범 인동동장은 “지금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장학금 모금의 필요성에 모두들 가까이 동참을 해 십시일반 모금된 금액이 7700만원이란 큰 금액이 됐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탁자 전원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을 했다.

한편 인동동은 이번 기탁으로 그치지 않고 장학금에 참여한 55명 전원을 인동동장학금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주민센터내에 장학금모금 창구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학기금 공무원 1인 1개좌 갖기 운동에도 전직원(20명)모두 참여를 완료했다.

이은진 기자

## 상주시-이마트 상주점 ‘희망나눔프로젝트’ 협약

### ‘희망나눔 봉사단’ 구성, 매년 사회공헌활동 전개

상주시와 ㈜신세계 이마트 상주점(점장 박기범)은 11일 시청 시민의 방에서 관내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후원하



기 위한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희망나눔 프로젝트’는 1년간 1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취약마을 환경개선, 희망그림대회, 희망 나눔 바자회, 희망김장, 한해 및 한해준거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마트 상주점은 2011년부터 ‘희망나눔 봉사단’을 구성, 매년 상주시와 협약,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취약마을 가꾸기, 환경그림대회 개최, 바자회 개최, 독거노인 밀박찬 지원, 김장김치 지원 등 1000만원 상당을 지원,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뭍소 실천하는 기업으로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박기범 점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지역 사회의 사랑을 전하는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고,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해 지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재영 기자

## (주)파인메디스, 대구특구 제4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 기업인지도 상승과 세계 혜택 두 마리 토끼 잡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는 2015년 대구



특구 제4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주)파인메디스(대표 전성우)를 지정했다.

(주)파인메디스는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 입주업체로 ‘미세침습 내시경용 다기능성 절개도 기반기술’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았으며, 경북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 전국 30여개 종합병원 및 300여개 지역 로컬 병원에 내시경 시술기구를 납품하고 있다.

전성우 대표는 현지 철곡경북대병원 위암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동료 의료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품의 연구개발을 추진했고, 고객에게 사용법을 직접 교육하고 있다.

이번에 (주)파인메디스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7년간 100%를 감면 받게 됐다.

박영덕 기자

## 소리없는 봉사료 외로운 이웃들에 희망과 사랑을 한국부인회 문경시지회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경북도지부 문경시지회는 지난 10일 문경읍에 위치한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방문, 입소 어르신들과 하루를 보내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한국부인회 문경시지회는 1987년 5월에 설립돼 현재 김월분 지회장의 35명의 회원

으로 구성, 지금까지 총본부의 사업계획이나 행정기관과 연계된 각종 행사의 차 무료 봉사, 캠페인 참가,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담그기 등의 통상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과 회원들 간 논의를 거쳐 사회·문화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 돕기, 노인전문간호센터 매월 방문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에 후원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오재영 기자



## 영주시, 깨끗한 우리마을 우리 손으로~

### 풍기읍, 새봄맞이 새마을 대청소 대대적으로 실시

영주시 풍기읍은 13일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겨울동안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새봄맞이 새마을대청소를 실시한다. 풍기읍새마을협의회(회장 이기원, 부녀회장 유수옥)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새마을대청소에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 주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남원천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서 실시하는 이날 행사에는 해빙기를 맞아 남원천 1.5km(상수도수원지-풍기1교-전구교)에 부유 퇴적 쓰레기 등 겨울내 묵은 쓰레기를 일제 수거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며 수변지역 일대에 버려진 각종 생활쓰레기, 영농폐비닐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풍기읍새마을협의회 관계자는 “새마을대청소를 생활화해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5월 8일까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미관을 조성, 다시 찾고 싶은 풍기읍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청정하고 깨끗한 첫인상을 보여드리자”고 말했다.

정주례 풍기읍장은 “청결하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마을대청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름다운 풍기읍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안전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 주자”

### 대구북부경찰서, 합동캠페인 펼쳐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안전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자’란 주제로 침산초등학교에서 이날 오전 8시 경찰서장·경찰관 및 북대부초등학교 교직원, 자율방범대원·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60여명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확보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안·아·주’ 합동캠페인은 학교폭력예방 범시민 공감대 확산 및 봄 조

성을 위해 북부서 관내 3개 초등학교에서 동시에 실시했으며, 등교하는 초등학교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합동캠페인 및 통학로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병행 실시했다.

북부경찰서는 ‘안전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운동의 봄 조성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합동캠페인 실시 등 어린이 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종관 기자



# 인생을... 생각한다

## ■ 광역 칼럼

### 국가경쟁력과 환경규제



염명천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지구에서 생명이 형성된 이후 5차례 대멸종이 있었는데, 각각 약 100만 년에 걸쳐 진행돼 매년 생물의 70~95%가 멸종했다고 한다. 원인은 기온 급변, 산소농도 저하, 메탄의 대량분출, 화산작용에 의한 산성비, 운석충돌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포유류 1종의 멸종에 50만 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한 달이 걸리는데 이는 과거 대멸종의 100배의 속도라고 한다. 어떻게든 기후변화가 아니어도 인류는 지구환경의 급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류는 1992년 리우선언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으나 이행은 지지부진하다. 몇몇 유럽 국가는 적극적으로 각국의 동참을 촉구하지만, 말과 달리 행동으로 호응하는 나라는 적다. 에너지를 수출하는 자원보유국, 경제발전이 급한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소극적이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사실상 하지 않

기로 해버렸다. 올해 있을 파리 유엔기후회의를 앞두고 각국이 전향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늘 반복돼왔다.

인간이 이처럼 이기적인 것은 이기적이지 않다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유인원에서 갈라진 이후 27종의 인류종(種)에서 1종 즉,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 그중에서도 역경을 거치며 극도로 이기적인 개체들만이 생존하고, 자손을 남겼다. 그 후손이 현재의 인간이다. 산업혁명으로 소득수준이 개선됐지만, 문명의 취약성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커졌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는 개인, 조직, 지역, 국가 간 경쟁을 끊임없이 강요한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역사는 이런 문제에 참고된다. '전제 왕정'이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비옥한 땅에 인구가 밀집해 번성했지만, 주기적인 범람이 문제였다. 그러자 공동 치수사업에 효과적인 정치체제가 성립한다. 전제 왕정은 관료제, 상비군, 노예제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해 번영을 이뤘다. 중국도 이렇게 황하의 치수를 해결한다. 마야와 잉카도 주기적인 한발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반면, 늘 출고 생산성도 낮지만, 그렇다고 큰 자연재해도 없는 유럽이나 중앙아시아에서는 전제 왕정이 유지되지 못했다.

기후대응도 전 지구적 문제이므로 세계정

부의 수립이 대안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후대응의 효과가 낮을 것이다.

민정부는 선거권자의 단기적 이익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위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다. 자유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대응은 더 어렵다. 설사 어느 국가가 나서도 타국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럽 국가들도 내심은 기후대응 기술을 고가에 수출하는데 관심을 더 갖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자원 빈국에 국민소득 50달러에서 일어난 나라다. 이제 3만 달러라고 하지만, 성장의 동인은 쇠퇴하고 사회적 모순은 증폭되고 구성원 모두 경쟁에 시달린다. 산업공동화, 자산가치 하락, 청년실업, 출산율 저하, 양극화와 노후빈곤 등이 '현실'이다.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일본의 그림자가 한국에도 어른거린다.

선진국도 국가경쟁력 제일주의로 치닫는다. 미국, 유럽, 일본의 경쟁적 금리 인하와 통화증발은 오직 자국의 경기부양과 실업해결만을 주목하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19세기 말 유럽의 관세전쟁과 닮았다.

한국의 기업은 수도권 규제,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 규제의 명분에 발목이 잡혀있다. 경쟁력과 좋은 세상은 일치하지 않지만, 경쟁력을 잃으면 생물의 멸종처럼 지구 상에서 사라진다. 19세기 말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던 조선이 그렇게 망했다.

국가경쟁력과 환경규제에 어떤 식으로 가치배분을 해야 할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시 쇠락한 한국을 기후대응 선도국이었다고 기려줄 외국인도 없다.

## ■ 윤신근 애견 이야기

### 개털, 어떻게 관리해줄 것인가 <13>



윤신근 수의사

우리는 개들은 스스로 자신의 털을 고르거나 상대 개의 털을 골라주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야생의 개들은 보온과 방수의 최대화를 위해서 항상 좋은 상태의 털을 유지하려고 한다. 벼룩 같은 기생충을 없애려 노력하고, 스스로 문질러 이물질이 털에 내기도 하며, 이빨로 헝클어진 털을 물어뜯어 자신의 피부와 털을 관리한다.

또한 같은 품종끼리는 서로 몸단장을 해줄



으로써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다지기도 한다.

개는 주인이 직접 몸 손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개를 손질하는 목적은 개의 피부와 털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함이 우선이다. 또 매력적인 조건을 유지하고자 기생충을 없애고 티끌, 풀씨, 땀 부스러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개 고유의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고, 피부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개와 주인 사이의 친밀함을 더해줄 수 있다.

빗질을 할 때는 거칠지 않고 빠르게 하는 것이 피부를 자극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한 마사지도 될 수 있어 좋다.

털 손질을 할 때는 머리에서 시작해서 꼬리 쪽을 향해 뒤쪽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는데, 털의 결을 따라 빗질을 하면 몸 전체가 잘 손질되기 때문이다.

유난히 털이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털갈이 때문인지 피부병 때문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만일 피부병이 의심된다면 즉시 수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털갈이 시기에는 촘촘한 빗이나 브러시로 솜털을 뽑아내듯 빗질을 해준다.

개를 빗질하는 도구로는 슬리커 브러시, 빗, 돈모 브러시, 와이어 브러시, 양날 빗 등이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살아 숨쉬는 낙동강,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3.12  
정부 3.12  
1970.12.12. 창립

대구지방환경청은 맑고 건강한 낙동강,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행복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살아 숨쉬는 건강한 낙동강**

-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확보
- 수질오염총량 제한 유입 선제적 차단
- 미생화학적 유역 물관리 정박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
- 환경 유해원천으로부터 주민 건강보호

**지역 생태계 환경가치 증진**

- 생태유수지역 환경가치 증대
- 생태계 건강성 회복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친환경적 개발 유도

**주민체감형 고품질 환경복지 실현**

-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환경복지 실현
- 고객 중심 서비스로 친환경 생활정착
- 수요자 중심 환경보호 및 뉴미디어 홍보 강화
- 직원역량 강화로 환경서비스 질 제고

### 혁신도시 인재채용, 감정원을 본받으라

대구 및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10% 안팎에 그쳤다는 보도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정부가 지역인재 채용을 개선해 독려하고 나섰지만, 이전기관들의 올해 지역인재 채용방침 역시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도대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배치한 당초 의도를 아예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한국가스공사·한국감정원 등 대구혁신도시 이전 9개 기관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 경북혁신도시 이전 5개 기관은 오는 19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14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채용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채용설명회에는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 지역출신 선배들의 사례발표 등과 함께 오전부터 채용상담 부스를 설치해 각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대1 취업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채용수준이 어떤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

국토부는 "지방이전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2년 2.8%에서 2013년 5.0%, 지난해 10.2%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번 채용설명회를 계기로 대구·경북지역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를

상향 설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율을 보면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은 2012년 7.2%에서 2013년 14.1%로 2배 가까이 늘었다가 지난해 8.9%로 다시 추락했다. 경북혁신도시는 2012년 0.8%, 2013년 0.4%에서 지난해 9.6%로 개선됐다. 올해 채용을 계획은 7.7%로 다시 하락했다.

대구-경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율 10%대는 부산혁신도시가 10.2%대 계속 상승하면서 올해 목표율을 23.1%로 잡았고, 경남혁신도시도 3.5%에서 11.9%를 거쳐 올해 목표율 16.7%로 잡은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감정원처럼 하려고 들면 가능한 일이다. 2013년 8월 이전 후 그 해 21.3%에서 지난해 26.4%로 비율이 높아졌고, 올 5월 채용 때는 30% 이상 올리기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옮겨온 신용보증기금의 2014년의 실적 8.7%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인재채용 때 지역인재 할당제와 지방대출신 우대제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에 적극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들은 이제 지역에서 결판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 아베, 메르켈 독일 총리 충고를 따르라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우리는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했다"며 일본도 침략전쟁을 벌인 과거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비수와 같은 말을 했다. 메르켈은 그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와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일본 아사히신문사 방문에서 그같은 말을 남겼다. "일본이 역사문제를 둘러싼 중국 및 한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과거 독일의 경험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타이르듯 아베 신조 총리에게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충고한 것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또 아베 총리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과거의 정리가 화해의 전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지지통신은 "일본이 한국,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함을 시사한 것"이라며 바른 말을 했다.

독일과 일본은 똑같은 2차 대전의 침략국이던 패전 70주년이 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함으로써 독일 지도자들이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참회하

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메르켈 역시 2013년 다하우 나치수용소를 찾은 것을 필두로 여러차례 독일이 과거의 범죄에 대해 영원한 책임이 있음을 주저하지 않았다. 독일은 일본과 달리 부끄러운 과거사를 단순히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과와 보상을 지속하면서 유럽의 가장 신뢰받는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아베와 극우파가 지배하는 일본은 오히려 자신들이 전쟁의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피해국가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천인공노할 집단이다. 메르켈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기 하루전인 8일 자민당 창당 60주년 기념식에서 2차대전 A급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속할 것을 '자민당 활동방침'으로 채택,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하는 기미는 손뼉만도 없다. 일본은 그 뿐 아니라 지금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도 수정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아베가 과거사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군국주의 부활을 꾀한다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비판만 자초할 뿐이다.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신문맛이 달라지면 신문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보는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물 산업의 메카!  경상북도

2015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

포럼



기간\_ 2015. 4. 12 ~ 17 (6일간)

장소\_ 경주 화백컨벤션센터(경주 HICO)  
대구 EXCO

“Water for Our Future”

**규모** 국가정상급 포함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연인원 4만여 명

**내용** 포럼 - 4개 주요과정별(주제별·정치적·지역별·과학기술) 논의 및 시민포럼  
EXPO & Fair - 물 관련 우수 정책, 제품, 기술 등 전시

세계물위원회(WWC)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매 3년마다 개최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